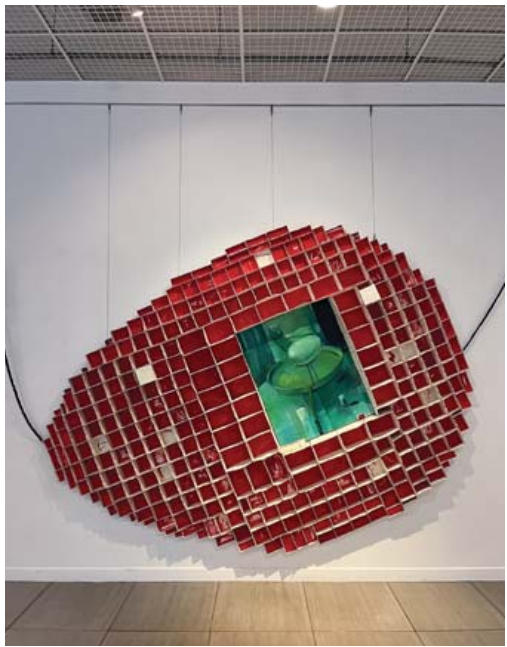


마주 서서 다시 보는 용기...삶의 다층적 순간 관조

한미경 기획초대전, 오는 12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

회화·설치·관객 참여형 작품으로 삶의 균형 직조한 유쾌한 성찰
‘한 발로 서, 양팔을 벌려 그리고 눈 감아!’...풍자와 은유의 서사

우리가 살아가며 맺는 다양한 관계 속 형성되고 흔들리는 순간을 담아낸 전시가 마련됐다. 한미경 작가 기획초대전 ‘한 발로 서, 양팔을



‘균형-어려운 것’

벌려 그리고 눈 감아’가 오는 12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에서 열린다.

전시 제목은 일상의 균형이 얼마나 섬세하고 불안정한 상태 위 놓여 있는지를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한 발로 선다는 것은 불안정함을 감수하는 용기, 양팔을 벌린다는 건 흔들림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려는 태도, 눈을 감는다는 것은 내면의 감각에 귀 기울이는 선택을 의미한다.

작가가 13년 만에 여는 이번 개인전은 ‘균형’을 주제로 회화와 설치, 관객 참여형 작업을 통해 삶의 다층적 순간을 탐색한다.

작가는 평범한 일상 풍경부터 사회적 사건, 인간관계의 미묘한 감정선까지 다층적인 장면을 담아내며, 그 안에 유머와 풍자의 지점을 다양한 상징과 서사로 직조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도 ‘웃음’을 균형 회복의 도구로 바라보며 사회적 메시지를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작품 속 인물, 동물, 곤충, 사물은 모두 이러한 시선을 구체화하는 매개체다.

출품작은 사회적 이슈와 사소한 일상이 교차



‘나와 다른 공’

하는 작품들이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다룬 ‘한강의 기적’, 12·3 계엄·내란 사태를 담은 ‘광화문에 나타난 발자크상’은 현실을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동시에 반려견, 날씨, 일과 휴식, 남녀관계 등 일상 속 균형의 순간을 포착한 작품도 함께 선보인다. 가변 설치작 ‘밥 짓는 아빠’, ‘밥 짓는 엄마’는 관객이 직접 참여해 가족과 사회 속 균형을 체험하도록 구성됐다.

전시에서 달걀은 주요 상징이다. 달걀은 쉽게



‘한강의 기적’

깨지지만 형태를 유지하고, 굴러가면서도 중심을 잡으려는 속성을 지닌다. 이는 우리의 삶과 닮아 있으며, 심리적·관계적 균형을 은유한다. 가로 2m, 세로 3m에 육박하는 대형 설치작 ‘균형-어려운 것’은 한지와 천, 실을 사용한 달걀 형상으로, 설치와 회화를 넘나들며 균형의 의미를 성찰적으로 드러낸다.

작가는 작품 속 다층적인 상징과 서사를 통해 관객이 스스로 이야기를 발견하고 확장해 나갈 의도한다. 단순히 감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시선과 관객의 해석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생성되는 ‘소통의 장’이 된다.

박우리 무등현대미술관 학예실장은 “이번 전시에서 ‘균형’은 완성해야 할 정답이 아니라 끊임



‘밥 짓는 사람(엄마)’

임없이 조율해 가는, 살아 있는 과정임을 이야기한다”며 “비틀거리더라도 균형을 향해 나아가려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윤상원의 삶에 투영된 ‘그해’ 5월의 기억들

민주와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윤상원 열사의 삶과 5·18 정신을 예술로 되새기는 창작 음악극 ‘상원: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관객과 만난다.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11일 오후 5시 빛고을시민문화관 2층 공연장에서 극단 죽달(죽도록 달린다, 대표 서재형)과 함께 이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광주문화재단이 추진하는 ‘민주주의 상징 문화콘텐츠 제작 사업’의 하나로,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민주주의 정신과 오월 광주의 가치를 쉽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상원: 지워지지 않는 기억’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2020년 초연된 작품이다. 작품은 윤상원 열사의 삶을 바탕으로 시대의 아픔과 용기, 연대의 가치를 노래·편지·역사적 증언이 어우러졌다. 1980년 광주 광산구에서 태어난 윤상원의 일대기를 그리면서도 특정 인물이나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오늘날에도 유

윤상원 열사 음악극 ‘지워지지 않는 기억’...내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상원: 지워지지 않는 기억’ 공연 모습

효한 연대와 공존의 메시지를 예술로 전한다.

연출은 동아연극상, 한국뮤지컬대상 등을 수상한 서재형 연출가가 맡았으며, 출연진으로는 뮤지컬 ‘영웅’, ‘지킬 앤 하이드’, ‘레베카’, ‘엘리자벳’ 등에 출연한 배우 왕하성이 윤상원

역을 맡는다. 이외에도 오찬우·엄정욱·김경민·김도연·서광섭·송나영·류다휘·전우형·김종현·황지우·김동진·김상아 등이 참여해 무대를 채운다. 무료 관람 문의 002-670-7448.

/최명진 기자

옥상달빛이 전하는 감성 ‘세레머니’

오는 24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일상의 피로를 아무만지는 곡을 선사하는 듀오 옥상달빛의 무대가 빛고을에서 펼쳐진다.

광주예술의전당 GAC 기획공연 포커스 공연인 옥상달빛의 ‘세레머니’ 공연이 오는 24일 오후 7시30분 전당 소극장에서 열린다.

옥상달빛은 김윤주와 박세진으로 구성된 여성 듀오다.

2011년 정규 1집 ‘28’ 이후 ‘수고했어, 오늘도’, ‘하드코어 인생’, ‘없는 게 메리트’ 등 현실적 주제와 소소한 감정을 따뜻하게 풀어낸 곡들로 폭넓은 공감을 얻어왔다.

이번 공연 ‘세레머니’는 ‘수고했어, 오늘도’, ‘달리기’,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등으로 레퍼토리를 구성해 바쁜 일상 속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감성적 휴식을 선사한다.

무대는 옥상달빛을 중심으로 기타 장성일, 드럼 조성준, 베이스 양영호, 바이올린 김바이



여성 듀오 ‘옥상달빛’

올린이 함께해 한층 풍성한 사운드와 완성도를 더한다.

관람료는 R석 3만원, S석 2만원이며 예매는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과 티켓링크(1588-7890)에서 가능하다. /최명진 기자

그린[®]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